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7호 【루계 제25005호】 주체10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사설

위대한 백두산대국을 천만년 길이 빛내여나가자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업적으로 존엄높고 강위력한 백두산대국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8월 15일은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의의깊은 날이다. 이때로부터 70년세월 우리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걸으며 세기를 이어 승리와 번영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왔다. 우리 조국의 장구한 력사는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이 결정된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여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사상과 업적은 민족만대의 고귀한 재보이며 수령의 권위와 존함은 나라와 민족의 강한 힘이고 백승의 기치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성상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항일혁명투쟁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사생결단의 반제대결전이였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시련속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해주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투철한 자주의 신념,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고수하시였으며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는 기층당조직들과 강철의 무장대오, 조국광복회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운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올수 있었다. 인류해방투쟁사에는 오직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포악한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우리 수령님과 같은 천출명장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다.

8.15해방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명맥을 끗끗이 이어놓고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력사적사변이다. 주체의 기치높이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웅적투쟁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게 되였으며 세계지도에서 영영 사라질번 하였던 우리 조국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어버이를 모시고 20세기의 준엄한 년대들을 헤쳐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두차례의 피어린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빈터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 불세출의 위인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인덕을 지니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와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을것이다.

우리 조국의 70년 력사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사회주의조선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일찌기 조선을 빛내이실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계승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반세기이상에 달하는 혁명령도사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의 사상과 정신, 우리 조국의 지위와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이다. 세계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민족의 대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원쑤도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된것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사회주의조선을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내이시며 조국과 민족, 진보적인류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우리 조국의 력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 백전백승의 혁명령도가 빛나게 실현되여온 력사이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력사는 주체의 홰불을 높이 들고 자주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여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강국의 기본징표이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ㄷ》에서부터 내세우고 일관하게 구현하여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철저한 자주의 사상이며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위하여 마련하신 주체적혁명력량도 강한 민족자주정신의 결정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주체의 혁명적진로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고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영웅조선, 천리마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자주적대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자주의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신념과 의지의 최고화신이시다.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나가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휘날려오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구호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관통되여있는 자주적신념의 분출이다.

령도자의 강인담대한 배짱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의 원동력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에서 우리 조국은 추호도 탈선하지 않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세기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왔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백승의 항로, 불변의 진로는 주체의 길이라는것이 지난 70년의 력사적총화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력사는 선군의 기치높이 대를 이어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아로새겨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군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다. 강력한 총대우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전 로정은 총대중시, 군사중시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선군사상은 자주시대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지도적지침이며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주체적혁명무력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 핵심력량이다. 언제나 총대를 앞세우고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와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군사적기적을 안아왔고 우리 조국을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확고히 실현된 금성철벽의 보루로 전변시키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의 위력으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그때로부터 50여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떨치게 되였다. 우리 조국이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압력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새 세기 산업혁명, 최첨단돌파전의 불길높이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해 폭풍쳐 나아가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선군의 보검을 높이 추켜들고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한평생과 맞바꾼것이다.

백두의 선군령장들의 슬하에서 단 한번의 실패나 좌절도 모르고 오직 백전백승만을 떨치며 무적의 총대우에 불패의 강국이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뚜렷이 새겨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력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꽃피워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사회주의의 기초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해방후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보람찬 삶을 누려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은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출발점으로 되였고 수령님의 인덕정치는 우리 조국이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참답게 담보해주는 어머니품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조국의 대고조력사, 창조와 변혁의 갈피마다에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을 믿고 그들의 힘을 불러일으키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적령도가 뜨겁게 어려있다.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고매한 풍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지전능한 존재, 스승으로 내세우신것도 인민이며 한평생 울리신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것이였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가 우리 장군님이시다.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에서 우리 조국의 날과 달은 인민의 세기적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전설같은 서사시로 수놓아졌다.

우리 인민은 비바람도 눈보라도 다 막아주고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이라는 조국관을 안고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과감히 헤쳐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이 구현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우리 조국이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꽃피우는 삶의 보금자리로, 인민의 수령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는 위대한 나라로 존엄떨칠수 있게 하는 초석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우리 조국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나라,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조국의 승리와 번영의 생명선이다. 사상과 리념도, 령도풍모와 혁명방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이 땅우에 수령님들의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수령님들께서 뿌려놓으신 강성번영의 씨앗들이 풍만한 열매를 맺고있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숭고한 경지가 펼쳐지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이 천백배로 다져졌으며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해방, 조국수호, 조국건설의 고귀한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70년 력사야말로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온 대통운의 력사이고 주체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여온 선구자의 력사이며 천만년 대를 이어 물려가야 할 민족번영의 귀중한 사회주의재부들을 마련한 불멸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영광찬란한 70년 력사를 승리와 번영의 력사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업적을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해방업적, 조국건설업적은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광휘로운 력사의 집대성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능의 백과전서이다.

우리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한평생을 다 바쳐 이 땅우에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혁명의 전취물들과 사회주의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후손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애국업적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체득하며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떨치며 사회주의로 부흥하는 백두산대국의 힘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야 한다. 강철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주적기상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본때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당의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선군혁명로선의 철저한 관철자, 선군정치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여 선군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군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빛내여가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이며 조국번영의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에 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담고 불굴의 정신력과 빨찌산공격전법으로 싸워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빨찌산녀전사들의 투쟁본때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백두산대국의 영웅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백두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민족최대의 숙원이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조국통일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내외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주신 우리 조국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번영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전민항쟁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한 민족사적경사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8월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조국해방업적, 조국건설업적을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 국 해 방 70 돐 경 축
중 앙 보 고 대 회 진 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은 온 겨레가 해방의 감격과 환희로 삼천리강산을 진감시켰던 그날로부터 70년이 되는 력사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세계전쟁사상 류례없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민족해방, 조국해방의 날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조국해방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조국해방의 민족적숙원을 성취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조국해방 70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자!》,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 조국해방 일흔돐 만세!》,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혁명렬사유가족, 영웅, 접견자,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해방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평의회대표단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법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웅, 접견자,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항일혁명투사들인 리을설동지, 황순희동지, 김철만동지, 김옥순동지, 박경숙동지, 리영숙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대회에서 보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승리와 번영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를 하였다.

조국해방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성스러운 년대기우에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승리와 번영을 아로새기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 씨 야 련 방 대 통 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

나는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인민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항일대전의 공동투쟁속에서 마련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끊임없이 공고발전하여왔습니다.

나는 뜻깊은 올해에 조로친선의 해가 선포되고 두 나라사이에 최고위급에서의 련계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긴밀해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고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주체104(2015)년 8월 15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각 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명절을 맞으며 우리는 70년전 귀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쏘련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경건히 추억하고있습니다.

그 준엄한 년대들에 마련된 친선과 협조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오늘도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선린관계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되고있습니다.

나는 정치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그리고 기타 분야들에서 호혜적인 쌍무동반자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보장에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웨 . 뿌 찐

2015년 8월 15일 모스크바, 크레믈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기네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알파 꼰데 기네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에서 보내여온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유엔개발계획 대표부에서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유엔개발계획대표부에서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브라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를,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에짚트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 유엔개발계획대표부에서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들이 13일과 14일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14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해방 70돐 경축 국제련대성행사에 참가하고있는 환경교육보급계획 집행국장 코지마 웨버 류,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니가 꽃바구니를, 웰남친선조직들의 련합회대표단과 김정일장군 베루친목회 위원장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베루위원회 서기장 에스뚜아르도 마르띠네스 베레스, 《코레아도보려행》 사장 로저 쉐퍼드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들과 선물들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승리와 번영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의 보고

동지들!

온 겨레가 해방의 감격과 환희로 삼천리강산을 진감시켰던 력사의 그 날로부터 70년이 되였습니다.

민족재생을 안아온 조국해방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조국이 걸어온 자랑찬 년대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빛내여갈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한마음을 굳게 새겨안고있습니다.

조국해방 일흔돐을 즈음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국의 해방과 통일독립을 위하여, 태양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울러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렬사들과 인민군렬사들,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해방작전에 참가하여 우리 인민과 어깨겯고 싸운 이전 쏘련의 붉은군대 장병들의 전투적위훈을 경건히 추억하며 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반외세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사회주의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지성을 다하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조국해방 일흔돐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조국해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주적혁명정신과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빛나는 승리입니다.

지난날 일제는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고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식민지폭압정치로 우리 인민에게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였으며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떠벌이면서 우리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고 조선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일제의 발굽밑에 짓눌리고 도탄속에 신음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것은 초미의 력사적과제로 나섰습니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 암담한 시기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천명하심으로써 쓰라린 실패와 곡절만을 거듭하던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위업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으며 영웅적항일대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대군과 결사전을 벌린 항일혁명전쟁은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고 백두팡야를 종횡무진하시며 신출귀몰의 유격전술과 전법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죽음과 공포를 안기시였습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북만에 대한 원정과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로의 고난의 행군, 대부대선회작전을 비롯하여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로 이어진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전반적조선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의지, 열화같은 조국애와 동지애, 고결한 인간애를 지니시고 모진 역경과 시련, 온갖 슬픔과 피로움을 다 이겨내시며 오로지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였고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의 구세주이시였습니다.

설한풍 몰아치는 백두의 전구에서 항일선렬들이 천신만고를 이겨내며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강의한 혁명적신념과 견결한 민족자주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영웅적항쟁사를 수놓아올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항쟁로선에 따라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거족적인 반일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굳게 결속됨으로써 조국해방을 위한 튼튼한 주체적혁명력량이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다가오던 력사적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전인민적봉기와 배후련합작전을 결합시킬데 대한 전략적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전국각지에 수많은 비밀근거지와 국내항쟁조직들을 확대강화하며 적극적인 적후정찰활동을 벌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을 령도핵심으로 하는 전민항쟁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최후공격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면서 노도와 같이 조국으로 진격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국내의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은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저항하는 원쑤들을 족치고 적통치기구들을 습격파괴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하게 벌렸습니다.

백두산총대가 높이 울린 항일대전의 총성과 더불어 주체34(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강도 일제는 패망하고야말았으며 우리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조국해방위업의 성취, 실로 그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힘을 믿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싸우는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에는 이전 쏘련의 붉은군대 장병들도 참가하여 피흘려 싸웠으며 우리 인민은 그들의 위훈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입니다.

조국해방은 조선혁명과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고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인류자주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특기할 사변이였습니다.

조국이 해방됨으로써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끝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게 되였으며 새 조선건설의 휘황한 앞길이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항일혁명전쟁의 승리와 우리 조국의 해방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독립을 쟁취할수 있는 귀중한 본보기로 되였으며 세계반파쑈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력사적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참으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과 민족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70년간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의 력사를 수놓아왔습니다.

새 조선건설의 려전을 다지던 때로부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로 이어진 우리 조국의 전 력사적로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간고한 길이였습니다.

전인미답의 이 로정에는 형언할수 없는 만난시련이 가로놓여있었으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자체의 강력한 정치군사적, 물질경제적토대를 억척같이 다지고 이 땅우에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거연히 일떠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70년력사는 자주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입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행정에서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당도 정권도 군대도 우리 식으로 건설하고 제반 민주개혁과 사회주의혁명도 우리 식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으로 이끄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으며 전체 인민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고 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철의 의지와 담대한 배짱으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시고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자기의 주견과 독자적인 관점에 따라 해나가도록 하시였기에 우리 나라는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도 끄떡없었으며 국제무대에서 그 권위와 영향력을 끊임없이 높여올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일제에게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자주의 강국,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존엄떨쳐온 긍지높은 력사는 자주적혁명정신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모든 영광과 행복의 원천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70년력사는 선군으로 백승을 떨쳐온 자랑찬 년대기로 빛나고있습니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선군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모든것이 전지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제국주의반동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드는 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며 승승장구해올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경제와 문화건설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시대에 견인불발의 의지와 불굴의 투쟁으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고귀한 재보로 됩니다.

식민지약소국으로부터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오늘의 긍지높은 현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갈 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의 주되는 총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끊임없이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열풍을 일으키시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전통과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조국의 만년재보로, 영원한 조선의 정신으로 빛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강화와 국방공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시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침략전쟁책동과 압살소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기에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용은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있습니다.

한달음에 일행천리하는 단숨에의 기상으로 세기를 주름잡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습니다.

강성국가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현실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부강번영할 래일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항일혁명선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목숨바쳐 옹위하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마다에 조아박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결사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끊없이 빛내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새겨안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을 대를 이어 꿋꿋이 걸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성스러운 태양조선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항일혁명선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목숨바쳐 옹위하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마다에 조아박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결사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주체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끊없이 빛내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새겨안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을 대를 이어 꿋꿋이 걸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속에서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 모두를 참다운 선군혁명투사들로 준비시키며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상강국의 무한대한 위력을 남김없이 분출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의 선군혁명로선,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국방공업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하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군사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차로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교육과 보건, 체육과 문학예술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며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밀림속에서 그려보신 해방된 조선의 모습은 통일되고 번영하는 하나의 강토, 하나의 조국이였습니다.

조국의 해방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고통과 비극의 70년력사를 겪어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지상의 과업이며 최대의 숙원입니다.

그러나 날로 악랄해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과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백두산칠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밑에 다각적이고 주동적인 대외활동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입니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만난을 헤치며 싸워나가는 필승의 혁명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맥박치고있는 한 우리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요새도 없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성스러운 년대기우에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승리와 번영의 년륜을 아로새기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 조국해방 일흔돐 만세!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떨쳐지고 겨레의 자주통일열망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전대미문의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백두산대국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찬란히 빛내여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상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안아오신 8.15해방은 어둡던 삼천리강토에 민족재생의 새 아침을 불러오고 조국과 겨레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선군의 총대, 조국해방의 횃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만고의 전설적영웅, 천하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인류력사의 년대기에는 명인과 명장들에 대하여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위대한 주석님과 같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만난시련을 이겨내시며 피어린 투쟁으로 민중의 자유와 행복, 민족의 자주적존엄개척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그처럼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강도 일제의 총칼아래 비참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겨레를 구원하시려 백두산의 장군별로 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신출귀몰, 승천입지하는 천변만화의 령활한 전법과 민중의 힘과 지혜를 능숙히 조직동원하는 비범한 령도예술로 아시아의 《맹주》라 자처하던 일제의 100만대군을 멸망시키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시였습니다.

드넓은 백두광야와 압록강, 두만강 굽이굽이마다에 피어린 자욱자욱을 남기시며 항일혁명 20년을 불멸의 영웅서사시로 아로새기신 위대한 주석님의 전설적인 행로가 있어 민족수난의 암흑시대는 영영 끝장나고 우리 겨레는 망국민의 설음에서 해방될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8.15해방과 더불어 삼천리강토는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과 《조선독립 만세!》의 합성으로 끓어번졌으며 온 겨레모두가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남녘민중은 지금도 해방의 기쁨속에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십만의 환영인파를 이룬채 불세출의 영웅이신 주석님의 서울입성을 손꼽아 기다리던 격정의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해방후 새 나라 건국의 기치높이 이북땅우에 진정한 민중의 새세상을 펼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으신 조국강토가 둘로 갈라진 비극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한평생을 깡그리 바쳐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시여 민족자주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고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진정 격동하는 20세기 세계정치의 중심에 거연히 서시여 조국의 해방과 나라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이룩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민중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과 조국통일령도업적은 또 한분의 천하제일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드팀없이 승계되고 더욱 빛을 뿌릴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걸출한 령도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주시고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여 삼천리조국땅우에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전진하는 6.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습니다.

가장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 탁월하고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뜰생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온 겨레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소동과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격파분쇄하시고 북의 국력과 민족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며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고계십니다.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한몸에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더이상 허용할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위업완성과 통일강국건설의 청사진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온 민족, 온 겨레를 통일애국에로 불러일으켜주시며 광폭의 도량과 하늘같은 덕망으로 해내외 모든 동포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목격하면서 우리 이남민중은 어버이주석님께서 안아오신 8.15해방의 감격이 조국통일만세의 환호성으로 울려퍼질 그날을 그려보고있습니다.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이 시각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민족의 구세주이시며 민족만대번영의 기치이신 백두의 천출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무상의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뜰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불퇴전의 의지와 용기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 만난시련이 가로막아나서고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일심으로 받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혈세위인들의 사상과 숭고한 뜻이 집약된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불변의 자주통일대강으로 추켜들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따라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로 온 국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심전력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반제민전을 사상과 행동의 전일성과 통일성이 보장된 강철의 전위대오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화,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며 날로 로골화되는 피뢰보수당국의 모략적인 반공화국《인권》대결소동과 핵소동, 로악무도한 파쇼탄압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번혁운동을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력사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반통일세력이 발악하고있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천출위인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뜰승불패의 선군령도가 있고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겨레의 충정과 통일애국의 의지가 있기에 자주, 민주, 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민중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선대수령분들의 위업을 받드시여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더욱 힘차게 떨치시며 조국통일과 부강조국의 밝은 래일을 힘있게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8월 15일 서 울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철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신 조국해방 70돐을 크나큰 민족적경사로 맞이하고있습니다.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날을 맞으면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마음과 마음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국의 해방으로 주체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사회주의조국을 무진막강한 국력을 지닌 불패의 자주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백두산혈세위인들의 조국해방업적과 조국건설업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조국해방의 환호성으로 끓어번지던 조국강토와 함께 이역의 탄광과 공장, 토목로동판들도 동포들이 부르는 해방의 만세소리로 뒤흔들리고 감격과 기쁨에 넘친 동포들의 행진대렬이 일본땅을 누비고 또 누비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장장 70년세월이 흐른 이 시각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아버님의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에 토대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여 강도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을 되찾아주신 8월 15일이 온 겨레와 더불어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얼마나 중대한 력사적사변이였는가를 절감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명시하시고 현대력사를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떨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주체조선의 시조이시며 만고절세의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세계정치무대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은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원한의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이역땅에 끌려와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며 억울하게 숨을 거두어야만 했던 재일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환희와 함께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시였으며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총련을 무어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매 단계마다 강령적인 교시로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길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삶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여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고 선군의 보검으로 총련을 굳건히 지켜주시였기에 우리들은 애족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의 영예를 만천하에 떨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들은 오늘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대원수님들의 혁명생애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태양의 력사로 영원히 흐르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재일동포들을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한집안식솔로 품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총련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으며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서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대강인 력사적서한을 친히 보내주시는 세상에 둘도없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무적필승의 백두산대국이 있고 재일동포들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은 조국해방후 지난 70년의 애족애국운동로정에서 우리가 심장속에 새기고 또 새긴 불변의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일흔번째의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의도대로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과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서한에서 가르치신대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며 수령님들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총련조직과 동포들의 혼연일체의 힘으로 총련을 백두산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불패성과 총련애국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애족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고 동포들의 생활상편의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동포되찾기운동으로 총련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첨예한 정세와 일본당국의 차별책동속에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을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선결과업으로 틀어쥐고 견결히 투쟁하며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 청년들과의 사업,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에 특색있게 기여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조일관계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외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림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애국적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간곡히 가르치신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철저히 관철하여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한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고 약동하며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중요한 일익을 맡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 총련애국위업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21세기 선군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4(2015)년 8월 15일 일본 도쿄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삼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하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의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들과 국제민주단체 대표들인 우리들은 귀국의 수도 평양에서 경축모임을 가지고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담아 이 편지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선해방 70돐 국제경축모임에서 우리들은 조선의 통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고귀한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큰뜻을 품으시고 항일대전의 길에 나서시여 수십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이 불멸의 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시였으며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채택하시여 조선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하기에 현대조선의 력사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로 조선을 자주의 한길로 곧바로 이끄시였으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인류자주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탁월한 업적으로 수놓아진 불멸의 력사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통일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는 장엄하고도 력사적인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나날이 변모되는 귀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반드시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며 조선은 온 세계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각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할것이며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입니다.

우리들은 각하께서 앞으로도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실것과 아울러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해방 70돐 국제경축모임 참가자일동

2015년 8월 14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627호 주체104(2015)년 8월 12일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에게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상과 위용이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미덥고 장한 녀자축구선수들이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것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고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인 또 하나의 장거이다.

세인을 놀래운 이 승전은 체육강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체육인들에게 각별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며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금메달로 보답하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경기장에 나선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인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투지, 당이 제시한 빨찌산공격전법으로 싸워 맞다든 강림들을 여지없이 눌러버림으로써 세계의 창공높이 람홍색공화국기를 보란듯이 휘날리고 선군조선의 련전련승의 체육신화를 창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만방에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 훈장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김정일상 1명

김 광 민

김정일청년영예상 3명

주 효 심
리 은 심
리 향 심

인민체육인칭호 4명

라 은 심
홍 명 희
김 은 주
리 명 삼

공훈체육인칭호 9명

리 예 경
김 남 희
김 은 향
김 윤 미
김 은 하

국기훈장 제2급 7명

위 정 심
윤 송 미
김 수 경
박 봉 남
전 소 연

라 설 주
리 은 영
리 희 정
김 평 화
박 신 정
최 경 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해외동포대표단 단장들과 주요성원들을 만났다

【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대표단 단장들인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림민식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 김칠성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 김수해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 회장,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남주현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의장과 주요성원들을 만나 동포애의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인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캄보쟈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해방 70돐을 축하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예트 시하누크가 10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각각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의 해방 70돐을 축하합니다.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조선의 해방 70돐을 축하합니다. 캄보쟈의 노로돔 모니니예트 시하누크대왕후》라고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우리 나라의 우수한 축구선수들에게 동아시아축구련맹에서
최우수상 수여

【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선수들에게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와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최우수상들이 수여되였다.

동아시아축구련맹의 주최하에 진행되는 경기대회들은 동아시아의 강림으로 알려진 여러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참가하여 패권을 다투는 국제경기이다.

남자선수들의 경기대회는 2003년부터, 녀자선수들의 경기대회는 2005년부터 진행되고있다.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이번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은 일본, 중국, 남조선팀과의 대전에서 련승패승을 기록하고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우승컵을 거머쥐였다.

동아시아축구련맹은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우리 나라 팀의 주장 라은심선수에게 최고득점자상을, 위정심선수에게 최우수선수상을, 김남희선수에게는 최우수방어수상을 수여하였다.

라은심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3개의 금쌀을 넣어 우리 나라 팀이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남자축구팀의 리명국선수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최우수문지기상을 받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조국해방과 나라의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조국해방의 감격과 환희가 삼천리 강토에 차고넘쳤던 1945년 8월 15일,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언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 온 겨레는 포악한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가 경탄하는 강대한 자주의 나라, 위대한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높이 떨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력사에는 위인들과 령도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애국애족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세월의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며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여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대성인으로 온 겨레의 다함없는 신뢰와 칭송을 받으시는 전설적위인은 동서고금에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해방 일흔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해방과 나라의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담아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을 찾아주신 해방의 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성상에 걸치는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신 해방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은인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세기 초엽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일제에게 국권을 통채로 강탈당하고 자기의 문화와 이름마저 깡그리 빼앗긴 식민지조선은 살아도 숨쉴수 없고 죽어서도 묻힐 곳 없는 말그대로 중세기적암흑천지, 하나의 거대한 인간생지옥이였다.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3.1인민봉기로 일제에게 항거도 해보고 의병투쟁과 독립청원도 해보았으나 차례진것은 침략자의 야수적인 탄압과 렬강들의 랭대뿐이였다. 온 겨레가 칠성관에 오른 조국과 민족을 구원해줄 위인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이러한 시기에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강도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는 독창적인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투쟁에로 불러일으킨다면 능히 우리 인민의 힘으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드팀없는 신조였다.

무장한 적은 오직 무장으로써만 맞서 싸워이길수 있다는 사상을 내놓으시고 주체21(1932)년 4월 25일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해방을 위한 길에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으로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국가적인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려야 하는 항일대전은 세계혁명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참으로 간고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그 길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잃는 가슴에이는 상실의 아픔도 있었고 촉한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가다듬으시며 《반일전가》를 지어부르시던 천교령의 엄혹한 고비도 있었으며 고난의 행군과 같은 최악의 역경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상할수 없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겨레의 운명을 구원할 숭고한 사명감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이겨내시며 항일혁명의 길, 조국해방의 길을 걸음걸음 피로써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체제적인 군사적에지로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유격전법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시고 전투마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매복전과 습격전, 유인전, 동성서격전술, 일행천리전술, 망원전술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유격전법과 전술들은 그 어느 병서나 군사교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님식 전법이며 전술이였다. 소왕청방어전투,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대흥단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마다에서 일제의 백만대군은 《창해의 일속》이라고 하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무리로 녹아나고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당하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은 99가지 변신술을 쓰신다.》, 《김일성장군님은 천기를 내다보시고 적을 치시는 무적의 장수이시다.》를 비롯한 혁명전설들이 끊임없이 태여나고 신출귀몰하는 항일유격대의 신묘한 전법에 의해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잦았나?》, 《호박대가리》와 같은 일화들도 생겨났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는 한편 전민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국광복회조직망은 국내각지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만주와 일본의 곳곳에까지 뻗어나갔으며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망라되였다. 또한 백두산지구를 중심으로 오가산지구, 구월산지구, 마두산지구, 태백산지구, 지리산지구를 비롯한 조선 각지에 전민항쟁을 위한 비밀근거지들과 림시비밀근거지들이 꾸려졌다. 바로 이 근거지들에서 수많은 무장붕기조직들과 무장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갔다. 조국해방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의 주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작전과 그에 합세한 전민항쟁력량의 총동원으로 이룩된 위대한 승리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존망의 기로에 처한 암담한 시기에 강도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시고 선군의 총대로 조국해방의 대업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고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시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해방의 은인이시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교수는 《우리 민중이 해방직후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의 수십만 시민이 솔대문을 세우며 그분의 서울입성을 학수고대했던것은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인사였다.》고 토로하였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김구가 위대한 수령님께 생명처럼 여겨오던 상해림시정부의 인장까지 서슴없이 내놓은것도 절세의 애국자, 조국해방의 은인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신뢰의 표시였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상해림정의 법통》이니 뭐니 하며 저들의 그 무슨 《정통성》에 대해 떠들며 가소롭게 놀아대고있다.

그것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의미를 외곡하고 《흡수통일》야망을 합리화해보려는 간교한 술책으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력사는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지워지거나 그 누가 외곡한다고 하여 결코 탈라지는것이 아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서광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항일혁명투쟁사와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국통일성업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에 의하여 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첫 시기에 벌써 그 침략적정체를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신년사를 비롯한 여러 연설들에서 북남 전체 인민이 자신의 손으로 통일독립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호소하시고 전체 인민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고 미제와 리승만역도가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처하여 민족분렬의 위기를 막고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로서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주체37(1948)년 4월 19일 온 민족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평양에서 성대히 열린 4월남북련석회의는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북남 각계각층 대표들의 력사적인 첫 대회합이였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미제의 사촉을 받은 리승만괴뢰도당에 의하여 전쟁의 위험이 닥쳐온 1950년 6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족상쟁의 비극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적인 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내외 분렬세력의 책동으로 북남대립이 격화되고있을 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에 기초한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련이어 내놓으시였으며 주체44(1955)년 8월 14일에 하신 《8.15해방 10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와 주체45(1956)년 4월 23일에 발표하신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년 8월 조국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나라의 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북남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현하며 남조선당국이 북남총선거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북남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통일방도를 제시하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과 통일운동이 더욱 고조되는데 질겁한 미제와 괴뢰도당은 그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면서 《두개 조선》 조작음모에 로골적으로 매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괴뢰들의 반통일분렬주의적책동이 강화될수록 더욱더 적극적인 평화통일공세를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한없이 넓은 포옹력,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61(1972)년 5월 평양에서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마련되고 그해 7월에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채택되게 되였다.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불휴의 심혈과 로고의 귀중한 결실이였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자주적평화통일로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1973년 6월 23일 《유신》 독재자 박정희역도가 《유엔동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들고나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여 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그리하여 남조선당국의 《특별성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휴지장이 되였으며 반통일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사상과 정견, 신앙을 초월하여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애국애족적인 통일방안은 남조선인민들과 정계, 사회계 진보적인사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9년 3월 남녘겨레들의 통일념원을 안고 평양에 찾아온 남조선의 문익환목사를 두차례나 접견해주시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년대초 복잡한 세계정치정세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계속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1990년 9월부터 북과 남 쌍방의 총리들이 참가하는 북남고위급회담이 시작되고 주체80(1991)년 12월 마침내 북과 남사이에 력사적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여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친히 구상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신 북남최고위급회담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일대 사변을 안아오게 될 력사적계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용단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의하여 주체83(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사이에 평양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력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였다.

《김일성 1994.7.7.》,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남기신 이 마지막친필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시고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민족의 어버이의 가장 거룩한 한평생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은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끝없는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백과전서적인 지침으로, 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인민과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다.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을 마련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시였습니다.》

일찍부터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조국통일위업을 진두에서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정력을 다 바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충정과 확고한 의지에 의하여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에 조국통일친필비가 훌륭히 건립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에 세워진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찾으시고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해주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의도하시고 바라신대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오직 한길을 따라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 불멸의 리정표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력사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온 겨레를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우리곁을 떠나신 후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닥쳐온 엄혹한 시련과 난관은 조국통일위업실현에도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은 대조선고립압살과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발광하였으며 남조선괴뢰들은 북남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해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조국을 통일하는 길은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는데 있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력량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비상히 강화되고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백방으로 다져짐으로써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핵전쟁기도는 걸음마다 분쇄되고 조국통일위업은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겨레는 우리 공화국이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해나가는 격동적인 사변들을 체험하면서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대공적으로 된다.

세기가 교체되는 2000년에 들어서 내외정세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력사에 류례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부흥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으며 조국통일운동도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강화되고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서 더한층 조직화, 적극화되는 속에 남조선당국도 대세의 흐름을 더이상 외면할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추이를 깊이 통찰하시고 북남수뇌상봉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9(2000)년 4월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력사적인 4.8북남합의서가 발표되였다.

주체89(2000)년 6월 평양에서는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이 진행되였으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여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새 세기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자주통일의 새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방송은 《남과 북은 전세계가 주목하고있는 가운데 공동선언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주통일의 첫 단계를 훌륭히 장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하와이 동서방연구센터 수석위원은 《6.15북남공동선언은 선군정치의 산물이다. 군력으로 밑받침된 북의 자주통일로선이 있었기에 조선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할것을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이 나오게 되였다.》고 평하였다.

온 민족이 통일의 환희에 넘치고 삼천리강토에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분골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는 감격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상봉의 기쁨을 나누게 되였으며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6.15자주통일시대의 거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되였다.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의 대행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들어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불세출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해방과 나라의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주체101(2012)년 새해의 첫아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시찰로 선군령령명도의 장엄한 퇴성을 울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해 3월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그날 판문점에 세워진 조국통일친필비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수령님의 친필비를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함께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같은 의지를 다시한번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신 력사적선언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접한 온 겨레는 북남관계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교귀한 지침들을 뚜렷이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고 자주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신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백승의 보검으로 물려주신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기에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발과 전쟁책동을 철저히 격파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으며 북남관계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나가고 있는것이다.

겨레의 통일념원을 절절히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월 16일 북남당국이 관계개선의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며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상 취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1월 23일에는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였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2월에는 우리 국방위원회와 남측 청와대사이의 고위급접촉이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으며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담은 특별제안을 남조선당국에 보내였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하여 현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밝히였다.

10월 4일에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가 첨예한 속에서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일행이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폐막행사에 참가하여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2015년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며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호소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이 나라 강토를 뜨겁게 격동시켰으며 북과 남 온 겨레의 가슴속에 조국통일의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패당은 그 무슨 《진정성》이니 뭐니 하고 우리의 제의를 악랄하게 모독하면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파국적위기에 몰아넣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여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민족에와 숭고한 덕망은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우리 겨레의 끊없는 매혹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온 민족이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드는 길에 조국통일을 앞당겨오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고 전설적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해방과 나라의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 땅우에는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5일
평 양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 판문점 도착, 결의모임 진행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뿌리내린 태양의 성산 백두산에서 출발한 동, 서해지구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들이 13일 분계연선도시 개성에 도착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먼저 개성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대오앞에 모시고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의 기상을 떨치며 힘차게 행군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을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날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대덕산소소를 돌아보았으며 근위부대전투위훈자랑모임을 가지였다.

14일 인민군군인들은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그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그들은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미제가 지난날의 수치를 망각하고 또다시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리고 영원한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민족만대에 굳건히 이어주신 불멸의 업적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세월은 흐르고 세기와 세대는 바뀌였지만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앞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군군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성새들로 억세게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준엄한 날에나 평범한 날에나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받들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전쟁로병들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아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강직하고 견실한 총대동지, 총대전우가 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빨찌산식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김일성-김정일주의전략전술과 영웅적투쟁정신,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무쇠같은 체력을 지닌 진짜배기 싸움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일군들은 군인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군인들이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심장의 붉은 피를 끓이고 애국의 담방울로 가슴을 적시며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그들모두를 조국이 알고 당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선군시대의 훈련영웅으로 키울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을 항일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강철의 공청조직처럼 더욱 강화하며 공농사와 축산, 수산의 3대열풍속에 모든 중대와 대대를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 정든 고향마을로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군판들인 백영명, 량철영, 사판 박금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선렬들의 피가 스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미제와 피뢰역적패당이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백두산총대로 침략자들을 불마당질해버리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반제전승업적을 총대로 더욱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꿋꿋이 이어 혁명의 붉은기를 더높이 추켜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도 최대로 거세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평화와 안전은 인류의 소망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인류의 절절한 소망에 대한 도전이며 시대적요구에 대한 역행이다.

그것은 이 연습이 가장 포악하고 강도적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남조선괴뢰들과 온갖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화근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연습을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한 《정례적이고 공개적인 훈련》, 《투명성이 보장된 정상훈련》으로 묘사하면서 그 침략성과 모험성을 은폐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그 누구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훈련》이라고 떠들고있다.

철면피와 파렴치로 일관된 궤변이다.

정전협정 어느 조항에도 상대방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려놓아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그 무슨 《남침》설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천모술수와 오그랑수에 매달린다고 하여 미국의 침략적인 정체와 피뢰들의 도발적인 행태가 가리워질수는 없는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조선반도를 전쟁상황에 몰아넣는 이 합동군사연습이 최근시기 포악성과 악랄성, 교활성의 도수를 넘은지 오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산물이라는데 있다.

우리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와 불신의 총체인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최종목표는 우리의 《제도전복》이며 신성한 령토강점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사상문화적침투와 《인권》소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고 횡포하며 형형색색의 적대적인 행위들이 전대미문의 극치를 이루고있는 리유도 바로 그때문이다.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엄중성은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작전임무로 하는 《한미련합사단》과 내외의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이 투입되고 모든 작전지휘소들이 전개된 상태에서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노리고있다는데 있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전쟁으로 살찌웠다고 하여 오늘도 그것이 미국의 생존을 부지해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도발을 위한 지금까지의 책동이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산생시켰는가를 랭철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미국의 침략대상으로부터 미증유의 대미분노심과 보복열기로 미본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기지로 되였다.

미국의 핵무기에 보총으로 맞서던 어제날의 청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비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대적인 최첨단공격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최강국이다.

이 기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포기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대응한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이다.

미국은 핵위협과 공갈을 비롯하여 우리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위협을 걷어치워야 한다.

당면하여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부터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초강경반미대응전에 직면한 미국본토의 안전이 보장될수도 있을것이다.

미국은 제재와 봉쇄, 압살책동이 가중되면 될수록 선군조선은 더 무서운 힘으로 용솟음치며 백배, 천배로 강해진다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껴야 한다.

부정의에 맞선 정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진리이며 필연이다.

미국은 《대세를 외면하는것은 시체와 바보뿐이다.》라는 자국의 격언을 진중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에 미국의 암울한 처지를 개변할수 있는 출로가 있다.

전쟁광신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도 최대로 거세질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5일

평 양

재개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물리적인 군사행동이 개시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지난 8월 10일부터 남조선괴뢰들은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며 《북도발》로 단정하고 그것을 구실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길에 들어섰다.

발생한 사건의 진상도 정확히 밝히기도 전에 청와대가 떠들고 괴뢰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들고 일어나 선택한 길이 바로 심리전방송재개이다.

전선지역에서의 《대북심리전》 방송재개는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행위이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중대사건이다.

지금 우리 전선장병들은 괴뢰군부의 도발적인 불망종짓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즉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자태를 드러낸 심리전재개수단들을 흔적도 없이 조준격파해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과 괴뢰군부에 다음과 같은 공개경고를 보낸다.

1. 재개한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는 고정 및 이동형의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모조리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대북심리전》 방송재개는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도발행위이다.

2. 우리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전전선에서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군사행동이 전면적으로 개시될것이다.

그것이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대북심리전》에 도용된 수단들은 우리의 타격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3. 우리의 군사행동은 있을수 있는 도전과 확전까지 예견한 무차별적인 타격전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의 경고에 불응하여 보다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북남관계가 완전한 파국상태에 직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괴뢰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져야 할것이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주체104(2015)년 8월 15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조선해방 70돐 국제경축모임 진행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조 회 비서 파닌드라 라즈 빤뜨, 김정일장군 메루친목회 위원장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메루위원회 서기장 에스투아르도 마르띠네스 베레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시며 20성상에 걸치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것은 그이께서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로 조선을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고 말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생애의 전기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인류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과 같으신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가, 인민의 수령을 세계정치사는 알지 못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서 쌓으신 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고귀한 재보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명인중의 명인, 위인중의 위인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더욱 영광찬란한 새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철의 담력과 배짱,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통일과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필생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게시여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며 인류자주위업은 승리의 한길로 끝바로 전진해나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조선분렬의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침략적인 핵전쟁연습과 있지도 않는 《인권》소동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단죄하였다.

오늘의 정세는 세계 진보적인류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련대성활동을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서 제시하신 통일대강을 받들어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인민과 어깨겯고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정숙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대륙과 대양을 넘어 평양으로 달려와 우리 인민과 함께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외국의 벗들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외국의 친근한 벗들이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것을 믿는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의 맥박, 평양시간의 메아리

주체104(2015)년 8월 15일 0시 조선에서 표준시간의 첫 종소리가 울리였다

주체104(2015)년 8월 15일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의 새날은 뜻깊게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신 력사적인 날을 맞으며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동경 127° 3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까지 사용하여오던 시간제를 버리고 평양시간을 명명한것은 일제의 백년죄악을 결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주체조선에 의해 이루어진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다.

조국번영의 력사속에 흐르는 종전시간 8월 14일 24시와 평양시간 8월 15일 0시사이에 남는 30분간은 종전시간 8월 15일 0시부터 0시 30분으로 하며 모든 시계들의 시간을 종전시간 8월 15일 0시 30분에 《평양시간 8월 15일 0시》로 맞추게 된다.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조국해방의 날을 앞둔 평양의 밤은 잠들줄 몰랐다.

정각 0시.

평양천문대의 국가표준시계에 맞추어 해방후 첫 새해를 맞는 우리 인민에게 해방의 감격을 더해주던 《평양종》의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였다.

력사적인 이 순간 인민대학습당 시계탑과 평양역 시계탑에서는 조선의 시간, 평양시간의 첫 시계종소리가 새날을 알리였다.

동시에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기차, 배들에서 울리는 고동소리가 하늘땅에 울려퍼지였다.

이 시각 오성산을 비롯한 영웅의 고지들과 동서해의 섬방어대들, 우리의 영용한 비행대들과 전략잠수함들에서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해나가는 인민군장병들, 우주정복의 새 경지를 펼쳐가는 위성과학자들과 각지 인민들이 일제히 평양시간에 분과 초를 맞추었다.

조국의 북변 온성군으로부터 분계연선지구의 마을들에 이르기까지 들끓는 전력생산기지들과 사회주의대건설장들, 협동전야, 과학연구기지 등 나라의 방방곡곡 인민들은 평양시간의 첫 시계종소리를 들으며 이 민족사적사변을 크나큰 격정과 기쁨속에 맞이하였다.

돌이켜보면 민족수난의 시기 나라를 잃은 망국노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 겨레, 일제의 군화발에 짓눌려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을 일삼아온 일제는 술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간생활과 국가사회활동의 기초인 나라의 고유한 표준시간마저 빼앗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시여 마침내 이 땅에서는 주체시대, 자주와 번영의 새로운 력사가 시작되였다.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들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오늘은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상을 영원토록 세계만방에 떨치며 조선의 표준시간을 적용하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할수 있었다.

평양시간의 종소리는 정녕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메아리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주체조선의 맥박이고 숨결이다.

주체의 의지로 맥박치며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평양시간에 맞추어 광명한 미래에로 돌진하는 조선의 이 장엄한 선언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듯 평양시간의 첫 시계종소리는 하늘땅에 메아리쳐갔다.

조선해방 70돐경축

백두대산줄기사진전시회 개막

조선해방 70돐경축 백두대산줄기사진전시회가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선뉴질랜드친선협회의 공동명의로 1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제주도 한나산까지 한지맥으로 뻗어있는 삼천리강토의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개막식에는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성자립 인민대학습당 부총장, 박경일 조선뉴질랜드친선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쿄레아도보려행》 사장 로저 쉐퍼드,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에 참가하고있는 대표단, 대표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20성상에 걸치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여 백두령장의 담력과 기상을 키우신 태양의 성산이며 우리 민족의 조종의 산이라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백두대산줄기는 조선민족의 단일성을 상징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이룩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로씨야련방 국방성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알렉싼드르 라쁀 로씨야련방 무력 동부군관구 제1부사령관 겸 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국방성대표단이 1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단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다.

대표단은 이밖에 주체사상탑,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진행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에서는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 참가자들을 위하여 14일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에 참가하고있는 대표단, 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북도발》을 떠들어댈수록 차례질것은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이라는 오명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일대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괴뢰헌병초소주변에서 원인모를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군인들도 폭발장면을 목격하였다.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았지만 남측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여서 별로 크게 관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뢰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화재나 폭우 등의 각종 리유로 지뢰폭발이 때없이 자주 일어나기때문이였다.

이번 사건발생지역에서 자연재해로 140여발의 지뢰가 터진것도 불과 열마전의 일이다.

그러나 《지뢰폭발》에 대하여 《북도발》이라고 괴뢰군부가 떠들고 괴뢰합동참모본부가 쉐쉐대고 청와대가 악청을 돋구고 나중에는 유엔까지 합세하여 우리를 걸고드는 조건에서 그대로 침묵하고있을수가 없게 되였다.

괴뢰들은 사건발생초기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헌병초소주변에 매설해놓은 수지반보병지뢰 《M-14》가 강한 폭우에 떠밀려내려온것이 그 원인이라고 공개하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10일 느닷없이 벌려놓은 기자회견에 나타난 김민석이라는 놈은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랍시고 이번 《지뢰폭발》사건은 《북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생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원래 제주견도 없고 소갈머리없이 놀아대여 버벌치로 락인된자이니 달리 될수 없는것이다.

이어 괴뢰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대북경고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해댔다.

그 내용인즉 괴뢰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뢰폭발이 《북도발》로 판명되였으며 때문에 우리더러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라는것이였다.

가판은 《한미합동조사단》 단장이 이번 사건을 《북도발》로 판명하는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한것이다.

톡음이 우거져 관측이 아주 제한된다는것, 사건발생장소가까이에 인민군측 초소가 있다는것, 현장에서 폭발된 지뢰용수철 3개가 발견되였다는것, 나무조각에서 송진냄새가 나는것을 보면 금방 매설한 지뢰라는것, 따라서 이것이 《북도발》의 《증거》로 된다는 억지주장으로 일관되였다.

괴뢰들은 아무래도 《북도발》주장이 과장되였다고 생각했는지 《추정된다.》, 《확실시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일반적으로 반보병지뢰는 자기측 방어구역에 설비하는것이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군사분계선 남쪽 400m지점에 있는 괴뢰헌병초소앞에 우리가 자기 방어를 위해 그것도 3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리용하였지 3발의 지뢰따위나 주물러댔겠는가.

치졸한 사유가 반영된 이따위 수작들에 귀기울일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것이다.

우리 역시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여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괴뢰들이 《결정적물증》으로 여러가지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구실로 북남관계전반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것만큼 그에 대하여 론의해보기로 하였다.

괴뢰들은 《북도발》의 첫째《증거》로 수거된 목함지뢰잔해에서 《강한 송진냄새》가 풍긴다는것을 내들었다.

말하자면 오래동안 파묻혀있던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가 새로 제작하여 현지에 매설했다는것을 립증시켜보려 한것이다.

실지 전문가들은 목함지뢰가 단기전에 필요한것이여서 2년정도 지나면 쓸모없게 된다는 제나름의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

만약 의도적이라면 굳이 무엇때문에 새로 만든 지뢰를 매설하였겠는가.

그래 거기에 묻을 지뢰가 없어 새로 만들어야 했겠는가.

초보적인 군사상식도 없는것은 둘째치고 괴뢰군부는 폭발된 지뢰가 수지라는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이미 발표한것마저 감감 잊어버린것 같다.

폭발로 산산이 부서지고 타버린 잔해에서 굳이 냄새를 찾는다면 화약냄새일것이다.

도발에 환장이 되면 수지와 나무도 제대로 가려보지도 못하고 없는 냄새도 착상해내는 미련한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것이다.

《송진냄새가 나면 모두 북의것》이라는 황당무계한 론거야말로 모략에 이골이 난 박근혜식 판단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괴뢰들은 《북도발》설을 립증하기 위해 《북목함지뢰》라는것을 꺼내놓았다.

그처럼 생생한 아군의 목함지뢰를 내놓은것을 보면 괴뢰들이 《북도발》의 모략극을 연출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였는지 가히 짐작할수 있다.

더놓고 말하여 비무장지대안에는 쏘련제, 중국제, 미국제를 비롯하여 형형색색의 지뢰들이 무질서하게 묻혀있다.

그 지뢰들이 장마철때마다 수없이 류실되고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폭발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괴뢰들이 수거한 우리 군대의 지뢰들을 폭파제거할 대신 고스란히 보관해두었다가 여러곳에 매몰해놓고 이런 모략극을 날조해낸 셈이다.

아군지뢰를 갖다놓고 《북도발》을 떠드는 것은 미물같은 짐승도 낯을 붉힐 일이다.

괴뢰들이 《물증》이라고 우겨댄 3개의 《생생한 용수철》도 그러하다.

폭발된 지뢰의 용수철이라면 적어도 부러졌거나 휘여들었어야 정상일것이다.

더우기 괴뢰들이 주장하는것처럼 《M-14》지뢰보다 아군지뢰의 폭발력이 몇배 더 강하다면 터진 용수철이 아무일도 없은듯이 생생하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이러저러하게 드러난 용수철은 군사분계선일대에 수없이 널려져있다.

하긴 《천안》호의 선체를 두동강냈다는 《어뢰추진체》를 조선동해에서 건져다가 《물증》으로 뻐젓이 내놓은 전과자이고 보면 괴뢰들의 이러한 처사가 별로 놀라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심분 리해가 되는 일이다.

괴뢰들은 미국과 공유하였다는 《합동조사결과》발표에서 아군초소보다 자기측 초소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기때문에 폭우에 의한 북의 지뢰류실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침입하여 매설한 《의도적인 지뢰공격》이라고 력설해댔다.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사건이 발생하기전 이 지역에 150mm의 폭우가 쏟아져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연히 아군지역이 아닌 괴뢰헌병초소주변에 매몰하였던 반보병지뢰가 떠내려왔다는 결론이 주어진다.

아마도 괴뢰들이 사건초기 저들의 지뢰가 폭우로 떠내려왔다가 폭발했다고 발표한 리유도 그때문일것이다.

무작정 우겨댄다고 엄연한 리치가 부정되거나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괴뢰들이 이번 사건을 《북도발》로 몰아대는 《확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은 보는 사람들을 더욱 아연실색케 하고있다.

괴뢰헌병초소에서 촬영했다는 이 동영상에는 1차폭발때 쓰러진 동료를 끌고 《철책선》통문으로 철수하던 괴뢰군사병들이 2차 폭발을 당하는 장면이 있다.

문제는 괴뢰군사병들의 거동이다.

폭발에 피를 흘리는 동료를 질질 끌고나오는 모습도 그러하지만 2차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기는커녕 규칙적이고 태연한 거동은 그 어떤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세련된 배우들을 련상케 한다.

방대한 첨단감시기재들을 촘촘히 배치해놓고 24시간 주야로 아군지역을 감시정찰하고있는 괴뢰들이 같은 장소에 대해 나무 몇대때문에 《판측》을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폭발장면만은 동영상으로 공개한것은 극히 모순되는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것이 지뢰폭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일 우리 군대의 《무장공격》으로 간주했다는 사병들의 진술 또한 너무나도 파장된 주장인것이다.

직반하장파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남조선 각계각층이 이번 《지뢰폭발》사건의 《북도발》설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천안》호사건의 신통한 복사판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괴뢰들이 내놓은 《북도발》의 허구성을 파헤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원래 남조선괴뢰들은 제 집안에서 무슨 불상사가 터지면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드는 악습으로 완전히 체질화되여있다.

바다에서 괴뢰군함선이 침몰해도 《북어뢰》때문이며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날아다녀도 《북소행》이며 주어온 뒤칸문짝도 《북무장인기잔해》이고 보온병껍데기도 《북방사포탄》이라고 우겨댄것이 괴뢰들이다.

하여튼 괴뢰들은 그것이 나무이든 숲이든 북의것이라면 무작정 적이라고 단정하는 정신착란자들이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괴뢰들이 황당무계한 모략극을 날조해낼 때에는 례외없이 비렬한 흉심이 깔려있다는것이다.

박근혜일당이 현 북남관계의 긴장상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반공화국삐라살포와 같은 동족대결을 합리화할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보려고 이미전부터 획책하여왔다는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것은 이번 사건을 《북도발》로 매도한 즉시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데서 잘 알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구실로 괴뢰국방부장관이 직접 미국상전의 전략폭격기 《B-2A》와 스텔스전투폭격기 《F-22A랩터》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강도를 높이기로 작정하였다.

괴뢰들은 북침전쟁연습에 대한 온 겨레의 저주와 분노를 의식한데로부터 이번 사건을 우리의 《도발》과 《위협》으로 날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전면역행하는 이 군사적망동에 당위성을 부여해보려 하였다.

《북도발》설은 괴뢰군부를 통채로 휩쓸고있는 염전사상과 군기강해이, 각종 부정비리에 이어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이번 《지뢰폭발》사건이 몰아올 거센 비난을 수습해보려는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가소롭게도 괴뢰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론의한다는 미명밑에 우리를 대화마당에 끌어들이려는 고약한 속내도 추구하였다.

주구의 서푼짜리 광대놀음에 합세하여 미국상전이 놀아댄 꼬락서니 또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지뢰폭발》사건의 《북도발》타령이 울려나오기 바쁘게 《유엔군사령부》의 탈을 쓴 미국놈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나타나 확성기를 들고 그 무슨 《정전협정위반》이니, 《남북불가침 합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니 하며 왜가리청을 돌구어댔다.

이것은 이번 《지뢰폭발》사건이 상전과 주구가 합작하여 꾸며낸 모략극이라는것을 제스스로 드러내보였을뿐이다.

남조선괴뢰당국에 정식으로 송고한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의 하나 우리 군대의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한복판에서 터졌다면 그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겨댈 셈인가.

만약 우리 군대의 《소행》이라고 그렇게도 우겨대고싶으면 그를 증명할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

그것이 없다면 다시는 《북도발》을 입밖에 꺼내들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을 군사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까밝히는데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존하고있다.

황당무계한 《북도발》을 떠들어댈수록 박근혜일당에게 차례질것은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이라는 오명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모하게 벋쳐지는 도발자들의 새로운 대결광란을 에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응당한 징벌을 초래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4일
평 양

아군 전선장병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조선인민군 전선련합부대들의 공개담화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극단의 지경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그것은 최근 며칠사이에 벌어진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만 보아도 잘 알수 있을것이다.

7월 24일에는 괴뢰악질보수단체인 《순교자의 소리》소속 어중이떠중이들이 경기도 련천군 중면 합수리일대에서, 7월 27일에는 《대북전단보내기 국민련합》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애기봉일대에서, 7월 31일에는 《남북대학생총련합》이 남강원도 철원군 중리 로동당사일대에서 풍선들에 삐라를 매달아 우리측 지역에 살포하였다.

8월에 들어와 5일에는 《미국인권재단》과 《이웃사랑선교회》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락하리일대에서, 6일에는 《하나로교회》가 인천시 강화군 창후리일대에서, 7일에는 《이웃사랑선교회》와 《미국인권재단》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락하리일대에서 삐라와 각종 불순전자매체들을 날려보내였다.

괴뢰들의 이러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그 규모와 회수에 있어서 지난 6월의 3~5차정도나 7월의 9차에는 대비조차 될수 없을 정도이다.

삐라살포를 위한 시간과 장소도 더욱 교묘해지고있다.

괴뢰들은 우리 군대의 무차별적인 징벌이 두려워 주로 새벽에 정하던 살포시간도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의 초저녁시간이나 또는 23시경까지의 사이로 엇바꾸어 변경시키고있다.

살포장소 역시 경기도 파주시 림진각과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의 야산 등 고정된 위치와는 달리 최근에는 도적고양이처럼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련천군 등을 비롯한 전선동부와 중부, 서부의 임의의 지역에 나타나 급급히 삐라를 날려보내고 달아나는 비렬한 수법에 매달리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괴뢰악질보수단체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괴뢰당국과 군부의 로골적인 묵인비호밑에 감행되고있다는것이다.

괴뢰합동참모본부는 민간반통단체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를 《풍선작전》으로 명명하고 전연에 배치된 모든 경계부대와 포병부대들에 《대북경계강화지시》를 내리고 《화력대기태세》에 둔 상태에서 심리전을 단행하고있다.

지금 《기독교북한인련합》, 《자유북한운동련합》 등 탈북자단체들은 물론 《자생초한마당》, 《이웃사랑선교회》, 《남북대학생총련합》, 《대북전단보내기 국민련합》, 《순교자의 소리》, 《하나로교회》 등 형형색색의 괴뢰보수단체들이 총투입되고 지어 《미국인권재단》을 비롯하여 해외에서까지 쓸어들어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도수를 넘어 군사분계선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있는 반공화국삐라와 불순전자매체의 대량살포는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공공연한 전쟁도발행위이다.

삐라살포는 가장 로골적인 심리전이다.

심리전은 주되는 침략전쟁수법의 하나이다.

전쟁이란 광고를 내고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벌리면서 무력을 투입하면 그것이 곧 전면전쟁인것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박두한 현시점에서 박근혜일당이 삐라살포와 같은 대대적인 심리전을 개시했다는것은 북남관계가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조성된 험악한 사태는 아군 전선장병들로 하여금 무자비한 멸적의 의지를 백배천배로 가다듬게 하고있다.

하늘끝에 치닫는 아군의 무서운 보복열기가 언제 어떻게 폭발하겠는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은 너절한 삐라 몇장때문에 통채로 불바다에 직면할수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전선장병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주체104(2015)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선련합부대들

일본의 과거청산회피, 력사외곡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인류력사에 가장 큰 재난으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70년, 대전의 주요장본인인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우리 나라가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지도 70년이 되였다.

지구인구의 80%를 휩쓴 전란속에 5 000여만명이 목숨을 잃고 5만개의 도시와 농촌이 재더미로 화한 그날의 참상도 이제는 력사의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고통의 체험자들도 세상을 떠나가고있다.

그러나 인류를 반대한 전쟁이 남긴 그 모든 상처의 아픔은 수십년세월이 흘렀어도 다 가셔지지 않았으며 또 잊을수도 없다.

더우기 불행을 강요한 가해당사자가 범죄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들이 터치는 울분은 결코 전시의 고통에 못지 않는것이다.

지난날 일본에 의해 참혹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입은 우리 인민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일제는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전쟁터와 고역장에 강제련행해가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끌어다 비참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어느 하나 옳바로 사죄하고 배상한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 공화국과의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들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력사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기에도 있어본적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가 그 누구의 《오보》에 의해 《날조》된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겪고있는 피해자들을 전장의 《매춘부》로, 《인신매매피해자》로 매도하고있다.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식민지국가들을 위한 《해방전쟁》으로,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로 외곡하여 새 세대들의 력사교과서에까지 서슬하고있다.

일본이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이 현존해있고 온 세계가 인정하고있는 전쟁범죄, 반인륜범죄의 진상을 애써 부정하며 력사외곡책동에 그토록 매달리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은 시간과 품을 들여서라도 파거범죄에 대한 저들의 파렴치한 외곡주장을 국제사회에 교착시켜놓고 전범국, 가해국으로서의 치지를 바꾸어놓음으로써 해외진출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또다시 지역의 패권을 거머쥐려는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전쟁방지를 규제한 《평화헌법》을 휴지장으로 만들고 공격형무력으로 전환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강행추진되고있다.

오늘날 일본은 아시아지역에 대립과 긴장을 몰아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정요소로, 위험세력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해방 70돐, 일제의 패망 70돐에 즈음하여 지난날 일본에 의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반인륜적범죄행위로 혹심한 정신육체적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계의 인권옹호단체들과 반전활동가들, 광범한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정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민주력량은 일본당국의 반인륜적파거범죄의 청산을 요구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자!

일본의 반인륜적범죄문제는 파거에 끝난 옛일이 아니며 이미 해결된 문제도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의 군인들에게 륜간을 당하며 짐승보다 못한 일본군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수많은 녀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참혹하게 짓밟혀진 그대로 있으며 강제로동의 후과로 정신육체적고통을 겪고있는 피해자들의 소송이 그치지 않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를 비롯한 지난날의 모든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일본이 력사앞에 진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온 세계가 정의의 목소리를 합쳐나가야 할것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본의 파렴치한 파거범죄부정, 력사외곡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력사의 진실을 지켜나가자!

일본의 력사외곡문제는 어느 한두개 나라와 지역의 감정이나 리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수백수천만의 인명과 존엄을 유린한 반인륜범죄에 대한 미화분식은 범죄를 반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기강과 룰리를 흐리게 하며 폭력과 전횡을 선동하는 화근으로 된다.

온 세계를 파괴와 혼란속에 몰아넣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전범국인 일본의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력사상 가장 심각한 국가권력에 의한 녀성인권침해행위로 새 세대들의 력사교육, 인권교육에 적극 반영해야 할것이다.

지성과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은 파거력사문제와 관련한 일본당국과 우익세력의 그릇된 립장을 반대하고 옳바른 력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두다 떨쳐나서자!

파거청산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옳바른 력사관을 확립하는것은 누구보다도 일본과 일본인민자신을 위해 필요한것이다.

일본이 지금처럼 반인륜적파거범죄에 대한 청산을 회피하며 그를 미화하고 외곡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국제적고립과 배척을 면할수 없으며 나라의 전도를 망치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력사에 대한 옳은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파거청산문제에서 자기의 법적, 도덕적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진실한 화해와 합류를 도모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100여년에 걸쳐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일본의 모든 가해 및 적대행위와 그 후과에 대하여 끝까지 계산할것이며 민족의 쌓이고쌓인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며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체들은 일본의 파거청산을 요구하며 력사외곡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104(2015)년 8월 15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일제패망 70년을 계기로 죄악에 찬 파거를 가리워보려는 일본우익보수세력의 시도가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일본내각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발표된 수상 아베의 《전후 70돐담화》에는 일본의 침략력사에 대한 성근한 인정과 사죄가 담겨져있지 않다.

지난날 전대미문의 침략과 식민지파쇼통치로 조선인민에게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들씌운 일본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파거청산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조선침략과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조선강점기간 일제는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살인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악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까지 강탈하였으며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다.

이러한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천인공노할 죄행과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한마디의 사죄나 반성도 없이 그 무슨 미래와 국제사회속에서의 책임, 공헌을 운운하는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다.

일본은 패망후에도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가담하고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였으며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광분하여왔다.

조선민족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아온 일본은 지금에 와서 자기의 파거범죄를 덮어버리고 《평화에 대한 공헌자》로 둔갑해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도전하는 철면피한 시도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지난 세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에 사로잡혀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면서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화를 들씌우다가 종당에는 패망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말았다.

오늘 일본은 패전의 비참한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위험천만한 군국주의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일본은 《적극적평화주의》의 간판밑에 전쟁국가부활, 해외침략을 선택하는 파멸의 길이 아니라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비롯한 모든 파거범죄의 청산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것이다.

일본의 백년죄악을 기어이 결산하고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 백배해지고있다.

주체104(2015)년 8월 14일
평 양

로씨야련방평의회대표단 도착

【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해방 7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예브게니 부슈민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평의회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씨야친선의원단 위원장인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과 알렉싼드르 미나예브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가 맞이하였다.

라오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 도착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에 참가할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라오스최고인민재판소 소장인 캄판 씰리담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부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결성 60돐 대표단 도착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결성 60돐 대표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웰 남 외 무 성 대 표 단 귀 국

팜 싸오 마이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외무성대표단이 1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16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기관차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남자롱구검열경기가, 모란봉체육단에서 경공업성체육단과 모란봉체육단사이의 쏘프트볼검열경기가 각각 있게 된다.

훼불컵 남자 1급 축구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6일 압록강:경공업성
17일 훼불 :봉화산
기관차:리명수
18일 월미도:장수봉
19일 초병 :4.25
묘향산:경공업성
20일 평양 :압록강
21일 소백수:리명수
훼불 :장수봉
22일 기관차:월미도

축구경기는 16일에 5월1일경기장에서, 17일부터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다.

ㄱ-51128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